

박준영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해야”

민주 대선 경선주자 부산 합동연설회 ‘PK 민심잡기’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경선 주자 8명은 26일 부산 베스코에서 열린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의 공약과 강점을 내세우면서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합동연설회에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문재인·손학규·김두관·박준영·정세균·조경태·김영환·김정길 후보 등이 참석, PK(부산·경남) 민심 공략에 나섰다. ‘컷오프’ 여론조사를 불과 사흘 앞둔 8명의 주자는 ‘영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전날 광주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참여정부 실패론, 4·11 총선 책임론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인 후보들은 이날도 참여정부 실패론과 지역 주의 타파 등의 문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이어갔다.

우선 김두관 후보는 “위기의 민주당을 살리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나섰다”며 “노무현 정신의 진정한 계승자인 제가 꼭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번 대선에서 꼭 승리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나가겠다”며

“부마항쟁의 불씨를 살린 이곳에서 유신정권을 정당화하는 박근혜 후보에 맞서 민주화 세력이 뭉쳐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자”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의 세 번째



26일 부산 베스코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예비후보 경선을 위한 영남지역 합동연설회에서 8명의 예비후보자들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학규, 조경태, 정세균, 문재인, 박준영, 김정길, 김두관, 김영환 예비후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 나라를 구한 것이 부산”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온몸으로 맞서 싸웠으나

이루지 못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싸워 정권을 교체해 경제민주화·복지국가를 이뤄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박준영 후보는 처음 기자생활을 했던 부산과의 인연을 소개하고 “부마 항쟁으로 승부를 겨워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콘텐츠를 갖춘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주력했다.

조경태 후보는 여당의 텃밭인 부산

에서 3선에 성공한 점을 들어 ‘영남후보 필례론’에 맞았다.

김정길 후보는 부산에서 7번 낙선

하면서도 민주당 당직을 지킨 이력을

있다”며 정수장학회의 사회활용을 촉구하면서 영호남 화합을 위한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정세균 후보는 지역주의 타파의 필요성과 함께 참여정부 실패론을 근거로 자신이 민주당 개혁의 적임자임을 주장했다.

한편 각 후보 진영 2000여명의 지

지자들은 베스코 입구에서 지지 후보자의 슬로건이 적힌 어깨띠를 두른

채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서로

세를 과시했다.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면서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나약한 대통령이 아닌 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후보는 지역주의 타파의 필요성과 함께 참여정부 실패론을 근거로 자신이 민주당 개혁의 적임자임을 주장했다.

한편 각 후보 진영 2000여명의 지

지자들은 베스코 입구에서 지지 후보자의 슬로건이 적힌 어깨띠를 두른

채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서로

세를 과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9~30일 여론조사서 3명 탈락

민주 예비경선 남은 일정은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예비 후보들은 지난 25일 광주를 시작으로 26일 부산까지 지역순회 합동연설회 일정을 마쳤다. 남은 일정은 대전과 서울 지역순회 합동연설회와 생방송 토큐회, 여론조사가 남아 있다.

이들은 27일 대전, 28일 서울 순으로 지역순회 합동연설회를 갖는다. 각 지역에서 연설회와 함께 생방송 텔레비전 토큐회도 행행한다.

여론조사는 29~30일 이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국민여론조사와 당원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다. 조사대상은 각각 2400명이고 조사방법은 전화면접이다.

다면, 당원여론조사는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을 세분해 각각 50%, 즉 1200명씩 표를 반영한다. 여론조사 결과는 30일 11시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발표된다.

결과에 따라 후보 8명 중 3명이 탈락하게 된다. 후보가 5명으로 추려지면 다음달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의 13개 권역을 순회하는 본 경선이 치러진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학교수 560명, 박준영 지사 대선출마 지지

전국 대학교수 560명이 26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나선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박 지사는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동시에 이룰 지도자로 믿는다”며 박 지

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박 지사가 내놓은 ‘훌륭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견에 뜻을 같이 한다”며 “친환경 농업을 통해 이뤄 놓은 업적을 볼 때 위기에 놓인

우리 농업과 농업인, 농촌도 살릴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또 “3선 도지사로서 전남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온 점에 믿음을 갖고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으로, 박지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세한대 교수는 “박 지사를 아는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한 마음으로 지지의 뜻을 모았다”며 “선거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박지사를 돋보이 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18 소재 연극 수년째 후원… 어제 곡성 공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연극 ‘짬뽕’이 26일 곡성군 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가운데 이 연극을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수년째 후원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연극과 박 위원장이 인연을 맺은 것은 3년여 전, 대학로의 마당발인 연합뉴스 선재규 전 국장의 소개로 이 연극을 접한 박 위원장은 당시 극단 살립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재정적 후원을 하는가 하면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연을 보는 것은 물론 지인들에게 소개하며 오피니언리더 사이에서 이

연극이 회자하는 데 일조했다. 짬뽕이 입소문을 통해 잔잔하게 대중화하는 데 숨은 공로자인 것이다. 때문에 극단 관계자들 사이에서 박 위원장은 가장 인기있는 정치인으로 통한다.

지난 2004년 5월 초연된 ‘짬뽕’은 소시민들의 시선으로 1980년 5월 광주를 그린 연극으로 9년 동안 약 10만 관객이 관람한 스테디셀러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처절하고 진중한 소재를 코미디화하면서도 치밀한 연출과 연기로 결코 가볍지 않게 소화했다.

이 연극은 5·18이 ‘짬뽕’ 한 그릇

때문에 일어났다는 기상천외한 상상력으로 접근한다.

황당한 해프닝으로 시작하지만 꽤

션과 논픽션의 절묘한 조화로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극에 몰입할 수 있다. 의상과 과정을 통한 해석으로 관객들을 한껏 즐겁게 하지만, 대미의 역전에서 오는 잔잔함이 콧날을 시큰하게 한다. 질펀한 남도 사투리가 정겹다. 지난 2004년 11월에 광주에, 지난해 10월에는 무안에서 공연을 한 바 있다.

/박영선기자 jkpark@kwangju.co.kr

조영택, 북구의 김재균, 나주·화순의 최인기 등 전직 국회의원들과 서구의 김보현, 이춘문 시의원 등도 조만간 복당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양형일 전 의원 등에게 복당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남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4·11 총선에 앞서 탈당한 인사들의 복당을 우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자격심사위는 또 12월 대선 승리를 위해 대승적인 회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회의를 재개,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탈당한 인사들의 복당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구의 양형일, 서구의



이용섭,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책 발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11 총선에 앞서 탈당한 인사들의 복당을 우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자격심사위는 또 12월 대선 승리를 위해 대승적인 회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회의를 재개,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탈당한 인사들의 복당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작년 잘못걷은 세금 2조3천억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26일 국세청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잘못 걱정했던 세금이 2조338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과오납금은 2조3386억 원이다.

이는 2010년 2조1625억 원보다 1761억 원(7.5%) 더 들어난 금액이다.

이 의원은 “고지서의 안내사항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거나 본인과 연대자의 중복 납부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세상, 깊은 감동의 서비스
다와 옥션 www.dawaauction.co.kr

다와 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환불!

실전기본반 : 매주 수요일

오전 : 10시 30분/오후 : 저녁7시
(3개월 16주 과정 25만원)

강사 : 이정석 교수(저자직강)

목요특강 : 매주 목요일

오후 : 7시(교육참가시 확인요망)

(교재비포함 수강료는 1-2만원)

과목 : 세무·민법·부동산정책·기타

기본경매와 보수교육

◎수시모집증(기수별 선착순 30명)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와)

문의 062-352-8589 (010-8004-6767)

문의 010-4911-4989 (062-268-8949)

다와부동산 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무법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근린주택

서구 농성동 역세권 6층 의료시설 대지290평

건평930평감정가22억 최저가14억

남구 주월동 2층주거 4층 상가주택 대지67평

건평155평 감정가4억7천 최저가3억

영광군 영광읍 2층주거 2층 상가주택 대지153평

건평90평 감정가2억 최저가1억1천

남구 백운동 주거지역 3층 상가주택 대지48평

건평100평 감정가3억2천 최저가2억2천

다구 주택 / 단독주택

광산구 월계동 2층주거 4층 다가구 대지131평

건평197평 감정가6억6천5백 최저가5억3천

서구 화정동 주거지역 2층주택 대지70평

건평56평 감정가1억8천 최저가1억4천

공장 / 창고 부지

북구 양신동 공업지역 대지1800평 건평 1530평

감정가29억3천 최저가18억8천

광산구 임곡동 준주거지역 대지233평

감정가2억2천 최저가1억6백

토지 매매